# 부처님 사리 놓고 다투는게 부처님 공경인가

## 불전속 신이한 이야기(8)

### 하늘과 사람과 용이 사리(舍利)를 나누어 탑을 세우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시자 파파국을 비롯한 8개의 나라 대중이 군대를 갖추어 부처님의 열반을 지키러 왔다. 그리고 구시나가라 역사에게 말했다.

"부처님은 바로 우리의 스승이요, 우리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당신네 나라에서 열반하셨지만 부처님은 만인의 스승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걸음에 달려온 것은 부처님의 사리를 받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사리를 받아 각자의 나라에 돌아가 탑을 세울 것입니다. 만약 우리 몫을 나누어만 준다면 온 백성이 중히 여기면서 함께 부처님을 기리겠습니다."

역사가 대답했다.

"세존께서 우리나라에 내려오시어 이 땅에서 열반하셨으므로 당연히 국내의 사민(士民)들이 공양해야 합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자 각국의 왕들이 함께 의논했다.

"온화한 말로 구하여 주지 않는다면,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힘으로라도 빼앗아 가져갑시다."

그러자 한 사문이 여덟 대중 안에서 말했다.

"만약 병사를 일으키면 서로가 비길 것이므로 결국 서로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선행을 쌓고 닦으면서 무량겁 동안을 참아 견디셨습니다. 여러분도 들었을 것이며, 그 부처님의 인욕을 찬탄해야 하는바, 어찌 병사를 일으켜 서로 능멸하고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공경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사리가 여기 있으니 8등분으로 몫을 나누어 곳곳의 백성들 모두가 공양할 수 있게 합시다. 여러분 또한 모두가 부처님의 계율을 받아 입으로 부처님 말씀을 외우면서 어떻게 사리를 갖고 다투어 서로 해칠 생각에 이르렀습니까?"

그 말을 들은 구시나가라 역사가 대답했다.

"당신의 의견을 공경합니다."

그리고 바로 사리를 8등분했다. 이때에 석제환인이 사람이 되어 나타나서 왕들에게 말했다.

"우리들 제천에게도 마땅히 몫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아뇩달 용왕과 문린 용왕과 이나발 용왕이 나타나 여덟 왕에게 말했다.

"우리들에게도 사리를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이때 다시 구시나가라 역사가 말했다.

"여러분, 제발 그만들 두십시오. 모두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곧 셋으로 몫을 나누더니 한 몫은 제천들에게 주고, 한 몫은 용왕들에게 주며, 또 한 몫은 여덟 왕에게 주었다. 제천은 몫을 나누어 받자 천상으로 돌아가 칠보탑을 세웠고, 여러 용왕들도 자신의 몫을 가지고 용궁으로 돌아가서 역시 칠보탑을 세웠다. 여덟 나라의 대표로 마갈국의 아사세왕이 그들의 몫을 세니, 저마다 각각 8만 4천 알의 사리를 얻었다. 아사세는 기뻐서 풍악을 울리며 하늘을 진동시켰다.

이때, 난두시 용왕이 중도에서 만나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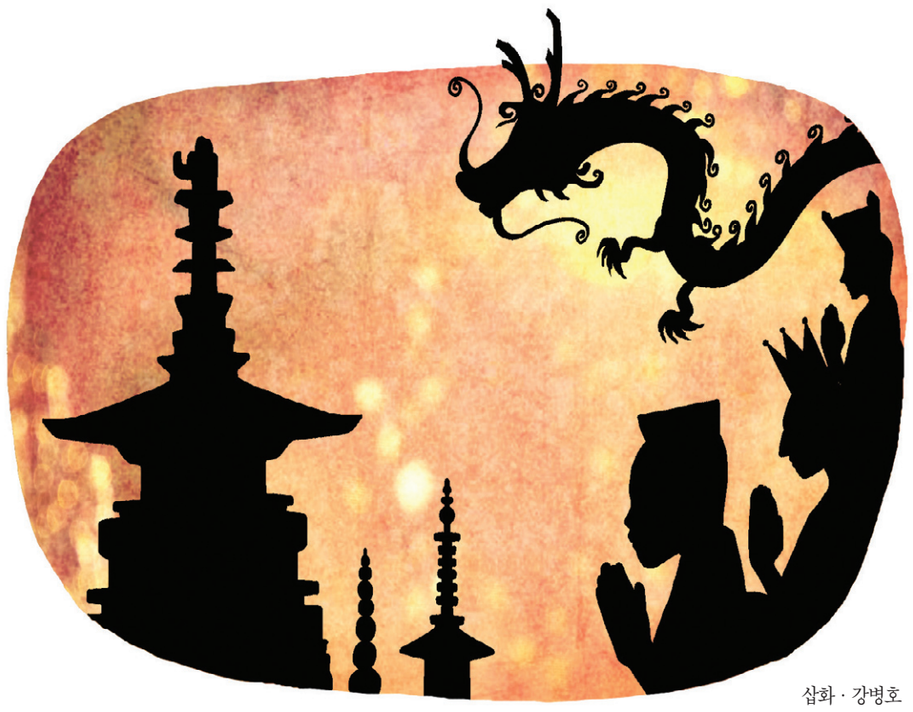
"부처님께서 남기신 사리를 저에게도 한 몫 주십시오."

아사세왕이 말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난두시 용왕이 말했다.

"내가 바로 난두시이다. 너희 나라 땅덩이를 들어서 8만 리 밖으로 던져 티끌같이 부수어 버릴 수도 있다."



삽화 · 강병호

왕은 두려워서 부처님의 코밑수염을 그에게 주었다. 용은 수미산 아래 탑을 세웠으니, 높이가 8만 4천 리나 되는 수정 유리 탑이다.

아사세 왕이 죽고 아육왕이 그 국토를 얻자, 대신이 아육왕에게 말했다.

"난두시 용왕이 먼저 아사세왕을 업신여겨 부처님의 코밑수염을 빼앗아 갔습니다."

아육왕이 이 말을 듣고 바로 귀신왕에게 명하기를, 쇠그물과 철적을 만들어 수미산 아래의 물속에 두고 용왕을 잡아오라 했다. 이번엔 그 사실을 전해들은 용왕이 크게 두려워하며 꾀를 내어 말했다.

"아육왕이 부처님을 모시고 깊이 잠이 들면, 그 틈을 타 그의 궁전을 수미산 물속 수정탑 아래 옮겨다 놓아야겠다. 그리고는 내가 나타나 직접 마주 보며 자세히 본말을 설명하면 성난 것이 반드시 풀어질 것이다."

그리고 난두시는 곧 바로 용을 보내 아육왕의 궁전을 들어 옮겼다. 아육왕이 잠에서 깨어나 자신이 어디에 와 있는 줄도 모르고, 높이 8만 4천 리나 되는 수정탑을 보고는 두려움에 어쩔 줄 몰라 했다. 이때 난두시 용왕이 스스로 나와 사과하며 말했다.

"아사세왕이 자진해서 가져다 저에게 준 것이지, 제가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석가여래께서 옛날에 저와 약속하시기를 '내가 열반한 후 장차 1겁을 마칠 때에 모든 경률과 가사, 발우 등을 가져다 이 탑 안에 보관하여라. 미륵이 내려오면 그때에 다시 그것을 꺼내리라' 고 했습니다."

아육왕이 그 말을 믿자 난두시는 다시 용을 시켜 왕궁을 본래 자리로 돌려놓았다.

이렇게 부처님이 열반하자 부처님을 그리워하는 사부대중은 부처님의 사리에 의지하려 했다. 하여 부처님의 사리는 하늘과 사람과 용왕이 골고루 나누어 가지게 됐으며, 사리를 봉안한 탑들이 세워졌다. 그리고 부처님의 사리를 분배받지 못한 부족은 다비터의 재를 가지고 가서 그것을 봉안하고 탑을 세웠다. 탄탑(炭塔)이라고 한다. 다비를 했던 자리에도 탑이 세워졌다. (〈쌍권니원경〉과 〈십송률서〉와 〈보살처태경〉 및 〈아육왕경〉에 나온다.)

〈경률이상-동국대역경원〉에서 발췌 재구성

구성=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이대원성 보살의

## 바라밀 일기 ⑧

# 생각하기 나름

나의 사돈은

나와 가족은 경상남도 부산에 살고 있는 '경상도' 사람이다. 16년 전, 둘째 딸이 전라도 영광 사람과 결혼하면서 전라도 지역의 사람과 사돈을 맺게 됐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다양한 국적과 다양한 지역이 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될 말들을 쉽게 사용하고 있었다. '전라도', '경상도'. 말만으로도 서로가 이미 상처를 안고 사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우리 사돈 관계는 너무나 좋은 인연으로 서로가 감사히 받아들이고 있다. 나는 우리 사돈이 세상에서 가장 점잖은 분들이라고 힘주어 자랑한다.

선조로부터 좋은 가풍을 이어받은 사돈 내외를 우리 가족은 존경하고 있다. 사돈도 마찬가지로 "우리 부산사돈 같은 사람 어디 있당가?"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며 한 번도 우리 사이엔 경상도 사람이 어떻고 전라도 사람이 어떻고를 해 본 일이 없다. 더구나 우리 딸과 사위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음에 그저 고맙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진심으로 좋은 인연에 감사하고 가을이면 김장을 15년이나 해서 보내오고 있다. 갓 찧은 쌀이며 고춧가루며 콩이랑 아무튼 뭘 주고 싶어 하시는 우리 사돈에게 무엇으로 보답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할 정도다.

**전라도 지역 사돈 맺었지만**
**우리집엔 '영 · 호남' 없어**
**'좋기만 한 것', '나쁘기만 한 것' 없어**

사돈은 아들 딸 5남매를 너무도 훌륭히 잘 키워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인물로 키우셨다. 지금 우리 사돈은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최고의 행복을 느끼며 살고 계시리라 생각 된다. 두 분 어른의 교육과 인성이 이처럼 큰 보람의 삶을 이루셨으니 나는 '우리사돈 만세' 라고 늘 인사한다.

그 동안엔 시골에서 흙과의 생활이 고되었지만 이젠 아무걱정 없는 행복으로 건강하시길 나는 늘 축원 드리고 있다. 그리고 이웃의 친구보다 가까운 우리사돈 전라도 사람, 이젠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은 대한민국사람이라는 생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특히 선거 때마다 혼사 때마다 왜 '경상도', '전라도' 로 거부반응부터 일으키는지 모르겠다. 삼가하고 존중하여 서로 우리처럼 사랑했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 자랑으로는 많이 부족한 우리 딸의 점수를 나보다 더 크게 주시는 우리 사돈이 마냥 고맙고 우리 사위 또한 우리 집의 든든한 큰 아들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다. 전국 어디서라도 우리는 한 민족 한 핏줄이니 생각의 망상 지우면 다 좋은 사람으로 살게 되리라 믿는다. 내가 미국 가서 살면 미국의 시민이고 미국사람 우리나라에 와서 살면 한국 사람이 되는 것이다. 사람의 감정은 누구나 똑 같음을 인식하면 우리 모두가 평안해지리라. 사돈 내외 분 사랑합니다.

부산의 눈과 서울의 눈

내가 살고 있는 부산엔 눈이 잘 오질 않는다. 그래서 그런지 어릴 적 어쩌다 내린 눈 위에서 놀았던 기억이 있어 어른이 되어서도 가끔 눈을 기다린 적이 있다. 며칠 전 결혼식이 있어 서울에 갔다가 우리 아이들이 모두 서울에 있어서 딸집으로 갔다. 가는 도중 눈이 내리기 시작 하더니 밤사이 너무도 많은 눈이 내렸다. 아침 창밖을 내다보았더니 세상이 모두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다.

싸박 싸박 눈을 밟으며 길을 걸으려 했는데 길은 미끄럽고 내 몸은 중심을 잡을 수가 없었다. 가방을 끌고 너무 힘들어 택시를 타고 조계사로 갔다. 마침 입춘기도 회향으로 스님의 우렁찬 축원이 경내를 가득 채웠고, 법당엔 발 디딜 틈 없이 신도들로 가득했다.

할 수 없이 법당 마당 나무아래 서서 합장하고 함께 기원을 드리는데 갑자기 머리위에 큰 눈덩이가 떨어져 깜짝 놀랐다. 하지만 나는 오랜만에 보는 눈이라서 마냥 좋기만 했다.

한번 들리고 싶었던 현대불교신문사를 방문하고 직원들과 점심을 함께하면서 부처님 일 하는 그들이 고맙고 거룩하게만 보였다.

친구랑 둘이서 모처럼 인사동을 한 바퀴 돌기로 했다. 쇼핑도하고 차도 마시며 마치 이국인처럼 거리를 활보했지만 그토록 즐거울 것 같았던 눈길은 무척 불편하고 힘이 들었다. 눈을 자주 볼 수 없는 우리 부산사람 생각으로는 눈만 오면 좋을것 같았는데 불편함을 느껴보니 우리 따뜻한 부산이 또 내 고향땅이 다시 생각났다. 그래도 적당한 눈의 아름다움을 한 번쯤은 볼 수 있으면 하고 기다린다. 녹지 않은 물건이라면 택배로 선물할 수 도 있을 터인데…. 눈(眼)에 담아온 서울 하늘과 조계사 지붕의 하얀 눈은 내게 한 동안 깊은 추억이 될 것 같다.

또 설날이 되었다. 음식을 먹으면 힘이 생기지만 나이를 먹으면 거꾸로 힘이 사라지는 내 나이 칠순에 무엇으로 세상 빛 다 갚을까 걱정이 된다. 꿈꾸듯 흘러가는 '지금' 을 바로 보고 지금을 사랑하고 지금을 용서하며, 행복한 모습으로 손 흔들어 회향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또 정진해야 할 것이다. 주고 또 주어도 줄지 않는 사랑과 기쁨을 만들고 좋은 인연에 감사하며, 진실은 언제나 아름다운 것임을 함께 느껴지길 바라며 '오늘' 이 다시 만날 수 없는 임진년 그믐밤임을 아쉬워하며 새해를 맞이한다. 새해 癸巳년엔 하늘의 해처럼 밝은 얼굴 밝은 가슴으로 모두가 행복하길 다시 한 번 축원 드리며 지나온 많은 시간을 돌아본다.

부산 연꽃모임회장


초절전형 슈퍼에너텍 전기 보일러
전국 사찰 300여곳 시공
지열히트펌프 냉 난방 기름값의 90% 절감
월난방비 40평 약 15만원(겨울철 기준)
난방모드 겨울철 외기에 의해 차가워진 실내공기를 땅속의 따뜻한 지열을 이용하여 난방
냉방모드 여름철 외기에 의해 더워진 실내공기를 땅속의 차가운 지열을 이용하여 냉방
태양광 발전사업 최고의 안정성 · 수익성

노후에 "연금이 따로 있나? 태양광이 연금이다 !!"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소 사업은 개인에게 사업권을 부여하여 안정적 소득 창출과 향후 노후대책은 물론 지속적으로 수입을 12년 동안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 100Kw 발전 기준시 년소득 약 5,000만원 (불자우대)
내일처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慧峰 합장
직통 011-335-6389, 대표전화 1688-5687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 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